



I&S

INTEGRATION & SOLUTION

아이앤에스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대표변호사 조영길

고객의 문제는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아이앤에스(I&S)의 원칙은 모두 같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길에 대한 믿음.
보편적이며 타당한 원칙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리롭게 해결하는 것.
아이앤에스(I&S)의 구성원들은 고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앤에스(I&S)의 구성원들은
수많은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길을 발견하여
의뢰인들과 함께 걸어가기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텔리24 동관19층

“사랑, 친절, 섬김” 장혜경의원

- 고신대학교 외국인 학생 지정병원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협력병원

진료과목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설비시설 물리치료실, 비만관리실

원장 장혜경



약력 및 경력
 前. 영도구 보건소 진료의사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졸업(M.D.)
 미국 조지아대학교 석사, 박사(M.S. & Ph.D., Univ. of Georgia, USA)
 現.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前. 동아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창원대학교 외래교수
 대한노인병학회 회원



장혜경의원

- 예약 및 문의 **051-403-8800**(팔팔공공)
- 위치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국민은행 버스정류소 맞은편
(주소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363-14 장메디칼빌딩 2층 장혜경의원)
- 버스노선 8, 33, 88, 101, 113, 135 (동삼동 국민은행 하차)



최고의 브랜드 It's You

2013학년도
고신대학교 신입생 수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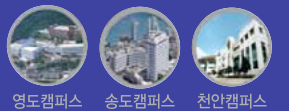
- 수시 2차 원서접수
2012. 11. 12(월) ~ 16(금)
-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
www.kosin.ac.kr
www.uwayapply.com
- 입학문의 : 051) 990 - 2141



고신대학교에서
세계로 통하는 브랜드가 되다!



고신대학교
KOSIN UNIVERSITY



영도캠퍼스(대학본부) 606-701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194(동삼동 149-1) TEL. 051) 990-2114 | FAX. 051) 911-2525
송도캠퍼스 602-702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암남동 34번지) TEL. 051) 990-6406 | FAX. 051) 241-5458
천안캠퍼스 330-15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삼룡동) TEL. 041) 560-1999 | FAX. 041) 560-1971

가정이 건강하려면



손봉호 (대표주간)

어떤 기독교 단체가 큰 집회를 준비하면서 CCC(대학생선교회) 창립자 빌 브라이트 박사를 주강사로 초청했다. 브라이트는 자기의 활동계획서를 훑어보고는 정중하게 그 초청을 거절했다. 그 시간에 자기 아들과 농구를 하기로 약속해 놓았기 때문이라 했다.

그런 태도가 과연 세계적인 기독교 단체인 CCC의 총재에게 적절한가?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거절을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이익보다 자기 아들과의 농구놀이를 더 중요시하는 것은 브라이트 박사 정도의 영적인 권위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는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자기 아들 한 사람과의 약속은 연기할 수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나는 아들과의 농구놀이 약속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모임에 차질을 가져오는 일은 하지 못할 것 같다. 실제로 나는 대부분의 경우 공적인 행사를 위하여 가족과의 약속은 주저하지 않고 연기하거나 파기했고 그 때문에 마음 아파한 경우도 별로 없었다.

브라이트 박사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브라이트의 결정은 우리가 당연하게 수용하는 상식에 대해서 한 번 근본적으로 반성해 볼 계기는 될 것 같다.

(1) 이제까지 우리는 가족을 나의 연장이라 생각하고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보다 덜 중요하게 취급해 왔다. 그래서 가족과의 약속을 어기거나 바꾸는 것을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거나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가족은 이미 나의 연장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들이며 따라서 가족들은 모두 나의 의무와 희생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없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여 부모의 부속품이 될 수는 없으며, 부부일체라 하여 아내가 무조건 남편의 뜻에 따르던 시대는 지나갔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으나 무조건 명령할 권리는 없고, 자녀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늙으면 보양할 의무가 있으나 모든 일에 다 순종할 수는 없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 고유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바로 인식하고 존중할 때만 건강한 질서와 화목이 가능하게 되었다. 브라이트에게는 아들에게도 신실할 의무가 있으며, 아들은 아버지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아직 약속하지 않은 수천 명의 교인들보다 약속한 아들에게 더 큰 의무가 있는 것이다.

(2) 브라이트 박사가 겨우 농구놀이 때문에 중요한 기독교 단체의 집회 강연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균형 잡힌 판단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가족과의 놀이가 가진 가치와 기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지금 대부분의 한국 가정들은 그 자체의 목적과 의미를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부모들은 생업에, 자녀들은 공부에 찌들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교회 출석과 QT, 봉사시간까지 보태어 정신없이 바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에 더 잘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채우고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들은 마치 군인들이 전투 중간에 잠깐 쉬면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예비사단과 비슷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심각한 전쟁을 치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휴식이나 놀이니 하는 것이 끼어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몸과 마음을 일하도록 만드셨다. 일하지 않으면 녹슬고 약해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과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다. 성정은 부지런히 일하기를 요구하면서도 놀랍게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명령한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쉬라 하였다. 단순히 다음 옛새 동안 일하기 위하여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축제일로 즐기란 것이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벌일 영원한 잔치를 미리 맛보란 것이다. 일하기 위하여 쉬란 것이 아니라 쉰 자체를 위하여 쉬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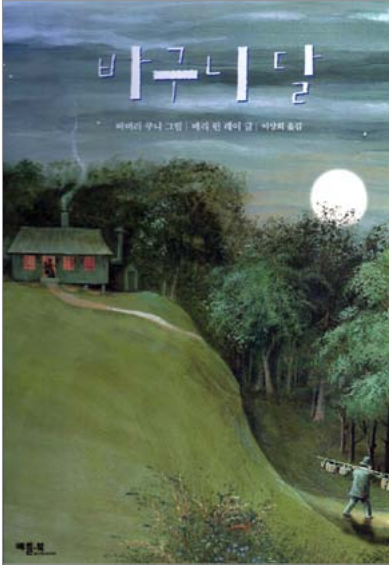
생업, 공부, 출세, 경쟁과 무관하게 단순히 즐기기 위하여 가족끼리 노는 것은 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중요하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와줄 것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든 긴장을 다 풀고 이해에 관심 없이 즐겁게 노는 것은 잠시 맛보는 천국이며, 가족과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보약이 될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가 한데 어울려 웃음을 하면서 아무 대가도 없는 승리를 위하여 마음껏 왁자지껄 떠들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이미 건강하거나 곧 건강해질 것이다. 같이 여행하거나 경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며 다른 것이 대체할 수 없다. 가정이 건강해야 생업도, 학업도 보람이 있고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일만하고 엄속하기만 하면 가정이 병들 수밖에 없다. 가족끼리의 즐거운 놀이가 큰 돈, 좋은 성취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압스 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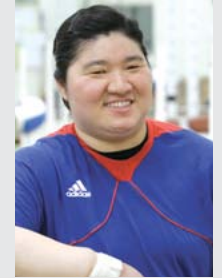
Contents

WORLDVIEW-NOVEMBER-2012



WORLDVIEW

2012년 11월호 WORLDVIEW 통권 149호



표지인물
장미란

〈월드뷰〉는 우리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OVER STORY

- 08 세계를 들어 올린 아름다운 손, 역도 선수 장미란을 만나다 _배성민
- 14 장미란 재단 소개 _편집부

SPECIAL

- 16 전인적 가정 건강 _최현일
- 20 크리스천 가정과 여가 _문익수
- 24 건강한 크리스천 가정의 시작 _엄혁주

COLUMN

- 04 대표주간 칼럼 가정이 건강하려면 _손봉호
- 34 미술이야기 김자연, 생명의 기쁨 _서성록
- 38 대중문화 속 가족이야기 가족의 여가활동으로서 TV를 위한 변명 _박진규
- 40 그림책이야기 그림책에 담긴 생명의 언어 _현은자

CULTURE

- 32 PHOTO ESSAY 가을 경남 밀양의 어느 길에서 만난 안개 속에서 _박정현
- 48 유머 머리 좋은 사람 _손봉호

BOOK REVIEW

- 44 서평 복음과 문화를 번역하라 『C. S. 루이스와 기독교 세계로』 _추태화

NEWS

- 49 월드뷰 뉴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대표주간 손봉호
발행/편집 김승욱
편집위원 김승태, 김혜정, 신현기, 유경상,
장유진, 차명실
자문위원 유진희, 정종모, 이상정
에디터 신효영
교정/교열 김선경
디자인 황정희
사진작가 박정현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www.facebook.com/cworldview)



월드뷰는 이번 기획으로 가정의 레저 및 스포츠 문화를 재조명하였다. 지난 달 전국체전에서 10년 연속 3관왕에 오른 역도 선수 장미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현직 중진 스포츠 기자가 선정한 대한민국 스포츠사를 빛낸 인물이자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넘어 스포츠와 스포츠인을 대변하는 올림픽 대표팀 만인니, 이제는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는 기도의 손, 장미란을 만났다.

세계를 들어 올린 아름다운 손, 역도 선수 장미란을 만나다

☞ 인터뷰어: 신효영 (본지 에디터)/ 섭외 및 감수: 배성민 (강동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

장미란 선수, 본인 소개와 신앙 배경을 부탁드립니다.

역도 선수 장미란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가장 많이 반겨주시고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역도 선수 장미란이라고 인사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곳곳에서 소개되는데요, 크리스천으로서 자기 소개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쑥스러워요. 주변에서 신앙이 좋다고 봐주시는데 사실 저는 부족하고 훈련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경기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거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말해주실 때 전 그저 좋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되었나요?

모태 신앙이에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녔던 것 같아요. 엄마가 가라고 하니깐 다녔고 늘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이라고 습관처럼 다녔죠. 주일학교 때는 하나님만 믿는 거라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나 성경 말씀보다 교회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달란트 시장 같은 것들이 재미있었어요. 그러다가 운동 시작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때부터 조금씩 성장한 것 같아요.



장미란 세계 역도 사상 가장 위대한 여자 선수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여자 최중량급(+75kg) 은메달 이후 10년 가까이 세계 정상급 선수로 군림했다. 이는 역도 여자 최중량급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2005·2006·2007·2009년 세계 선수권대회 4연패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인상 140kg과 용상 186kg을 들어 올려 합계 326kg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우승함으로써 4년간 세계 정상을 지켰으며,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도 우승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역도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였다. 또한, 2012년 현재까지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수립한 세계신기록(용상 187kg)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12년 2월 비인기 종목 지원 및 스포츠 꿈나무 육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장미란 재단을 설립하여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언론에서 독실한 크리스천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독실한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신앙이 온전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는 하지만 늘 부끄러운 모습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해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으면서도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더라구요. 부모님은 열심히 믿으시는데 자녀는 안 믿는... 처음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 의아했어요. 저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는 교회에 다니지도 않으셨고 못 가게 하셨어요. 그 당시 아빠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제 시합을 위해 기도도 하시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젠가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서두르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운동하면서 그런 걸 더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 없이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 저 선수들은 어떤 마음으로 운동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든든한 힘이시니까요.

2012년 초 장미란 재단을 설립했는데,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썼는데 부담되지는 않나요?

사실 재단을 설립할 때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꺼려져서 고민했었는데 마땅히 사용할 이름이 없었어요. 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재단을 알리고 같이 활동하는 데도 좋을 것 같다고 주위에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이름은 장미란 재단이지만 “함께” 어울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재단입니다.

어떻게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고, 이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시작하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혜택과 사랑을 받았지만, 태릉 선수촌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선수들 중에는 인기도 많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선수들도 있지만, 상황이나 형편이 어려운 선수들도 많아요. 아예 생활 자체가 어려운 선수들도 있고요.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나중에 저런 선수들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 역시 운동을 시작할 때, 역도가 비인기 종목이라 여러 가지로 지원이 부족했거든요. 그저 비인기 종목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팀 비자(Team Visa) 후원 선수가 되면서 비자에서 제 이런 생각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었지요.



비자라는 단체에서 후원하는 유일한 우리나라 선수인데, 비자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스폰 활동을 하는지, 또 이런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이 있는지요.

자체적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도 하겠지만, 비인기 종목을 후원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어쩌면 처음이 아닐까도 싶어요. 사실 비인기 종목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최근 분위기잖아요.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선수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기 시작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 사업이 쉬운 일도 아니고 많지도 않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비인기 종목을 돕는 사업에 관심을 갖기까지 든든한 조력자나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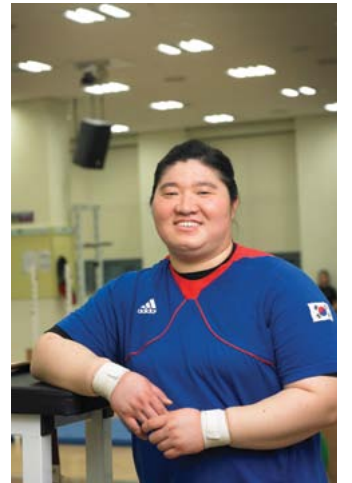
아무래도 부모님과 동료 선수들이죠. 부모님이 제가 생각만 했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운동을 해서 대외적인 부분은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또 제가 이런 것을 만들더라도 호응해 주고 지지해주는 동료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같은 마음을 품은 주위 동료들과 선수들이 있어서 든든해요. 함께하며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할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소외 계층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지역 스포츠 기반 활성화 사업, 스포츠 멘토링 프로그램, 운동선수들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까지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준비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애착이 가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저는 그중에서도 스포츠 멘토링 사업이 가장 애착이 가요.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사업을 해도 사실 저 혼자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고, 함께하는 선수들이 제가 이런 것을 꿈꾼다고 했을 때 흔쾌히 동참해 주었어요. 일회성의 금전적 지원 같은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선수들이 스포츠 멘토가 되어 직접 꿈나무를 만나서 소통하며 도와 서로의 꿈과 희망을 나눠주는 사업을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사역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갈등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던 점은?

재능도 있고 신체 조건도 탁월한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장비 등 비용 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운동하면서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무엇보다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매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꿈나무들에게 올림픽 선수들의 한 마디는 큰 힘이 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저는 올림픽 선수들과 꿈나무들의 그런 자리를 마련해



“재능도 있고 신체 조건도 탁월한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장비 등 비용 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운동하면서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무엇보다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주고 싶었고, 그것이 꾸준히 이어지게 하고 싶었어요. 어려운 꿈나무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명씩 돕다 보면,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 이런 지원이나 후원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라는 꿈나무들에게 장미란 선수가 해주고픈 조언은 무엇인가요?

어려서 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환경도 아니었고, 그러다보니 나는, 우리집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에 쉽게 빠지게 되고 점점 더 불평, 불만만 늘어갔어요. 그러다가 역도를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꿈도 꿀 수 없었고, 아무런 목표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던 제 인생이 역도를 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장점보다 단점이 많고, 뭘 뛰어나게 잘해서 늘 칭찬받는 아이도 아니었지만 역도를 하면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을 누렸어요. 뭔가를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는 것에도 많이 감사하고... 역도 선수를 하면서 많이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저도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10년 전이나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이게 뭐가 힘든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요. 내가 역도 선수라는 것에 늘 감사해요. 나에게 주어진 언뜻 보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 우습게 생각했던 것들이 제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화려하거나 대단한 시작은 아니었지만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성실히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이, 널리 쓰시는 것 같아요. 높이 쓰인다는 것이 반드시 성공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항상 묵묵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국내 스포츠/스포츠인에 관한 인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베이징 올림픽때만 해도 메달을 기대했던 선수가 메달을 못 따면 위로나 격려보다는 비판과 질책의 반응이 많았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건데, 정말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죄책감이 생겨요. 그런데 최근 4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메달을 따지 못해도 최선을 다한 모습을 먼저 봐주시고 오히려 선수들을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구나 싶었어요. 이런 격려가 선수들에게는 큰 힘이 되요. 선수라면 누구나 잘 하고 싶거든요. 주위 환경도 그렇고 요즘은 전보다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바른 체육 문화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체육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세요' 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응원 문화를, 선수들이 운동을 '하다보면' 만들어 지는 건데, 그 '하다보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응원을 '하다보면' 응원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그 응원은 먼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 같아요. 마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선수가 잘하길 바라는 마음이, 선수들은 내 목표

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뿐 아니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보면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사역의 비전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재단은 어떻게든 만들어 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인데, 재단에 관련하여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소외된 계층, 어려운 아이들을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일단 스포츠 재단, 그것도 비인기 종목이라 사실 범위가 넓으면 넓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내 주위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각 종목의 선수들의 추천으로 도움을 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각 종목별로 스포츠 멘토링 그룹을 준비하고 있어요. 꿈나무들이 지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림픽 스타의 추천과 지원을 받는 것도 큰 의미가 있잖아요. 선수들도 그렇게 지원하고 멘토링을 하다보면 자신이 추천한 꿈나무가 도움을 받는 것도 알 수 있고, 추천한 꿈나무들이 지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등 서로 교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런 자리와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 싶고, 후에 스타와 꿈나무가 아니라 정말 같은 운동선수로서의 고충도 들어주고 나눔도 갖는 하나가 되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장미란 씨가 그려보는 미래의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역도 선수로서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했고 또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기억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는 이제 운동선수로서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운동을 그만뒀도 스포츠인으로 따뜻하고 뭔가 꿈과 희망을 지속적으로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역도로 인해 제 인생이 바뀌었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었고, 인생을 신나고 재미있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를 보시는 분들이 저를 통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더불어 <월드뷰> 독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다면?

요청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어려운 분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실의에 빠진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고 앞으로의 일들에 우연이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꿈꾸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소망하면서 사는 게 어떨까 해요.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 많지만, 그런 것들에서도 꿈과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배성민 강동대학교 레저스포츠과 교수,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이학박사, 스포츠심리학 전공),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 이사, 한국 대학 태권도연맹 이사를 역임하였다. 영동제일교회 청년부 부장으로도 사역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웨이트트레이닝 방법론』, 『헬스 앤 다이어트』 등이 있다.

장미란 재단

장미란 재단은 비인기 종목 선수의 후원을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대한민국 최초로 여자 역도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장미란 선수가 주축이 되어 2012년 2월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비인기 종목의 상징인 장미란 선수를 통하여 스포츠를 통한 도전과 꿈의 발견 그리고 공유를 목표로 설립된 재단으로 모두가 행복한 '어우러지는 삶'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역도, 육상, 동계 스포츠 종목 등 비인기 종목 선수들을 지원 및 후원하고 다문화 가정, 탈북자, 결혼 가정,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유소년 체육인 양성 및 후원, 교육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넓게는 지역인을 위한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 스포츠 기반 활성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미란 배(杯) 역도 대회 등 체육 발전을 위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세계적 기업인 VISA의 후원으로 체육 발전 관련 국제 교류 사업을 통해 저개발국 체육 발전 지원 사업, 장미란 기념사업 및 장미란센터로 기념 및 체육 센터 건립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미란 재단의 가장 독특한 사업은 K-team 스포츠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현·전 스포츠선수(헤드 멘토 Head Mentor)와 재능 기부자로 구성된 멘토 그룹과 스포츠 꿈나무(Special Mentee)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로즈란 나눔응원후원 캠페인을 진행하며,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후원 및 스포츠 꿈나무들을 위한 소셜 펀딩을 실시, 올림픽 꿈나무 멘토링 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K-team 스포츠 멘토링은 스포츠 선수들과 재능 기부자의 뜻있는 재능 기부를 통해 정규강좌, 특별강좌, 방학 중 스포츠 캠프, 찾아가는 스포츠 멘토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주소 www.roseeran.org

진행하며, 자라나는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 주고 스포츠를 통한 참된 가치관 형성의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수익은 헤드 멘토가 추천하는 스포츠 꿈나무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헤드 멘토는 자신이 지명한 스포츠 꿈나무가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포츠 클리닉, 인생 멘토링 등의 지원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의료시설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튼튼병원과 협력하여 튼튼의료나눔 사업을 체결, 비인기 종목 선수와 팀에 대한 의료지원과 자라나는 스포츠 꿈나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의료소외계층인 독거노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을 증진하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스포츠 꿈나무들을 위해 드림장학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인기 종목의 활성화를 통해 스포츠 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장미란 재단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Worldview Special

건강 [health, 健康]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여가 [Free time, 餘暇]

직장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충전, 휴식을 겸한 다양한 취미활동이 포함되는 경제 활동 이외의 시간으로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과 여가, 레저문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은 무엇일까?

성경적인 건강한 여가문화는 어떤 것일까?

“당신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전인적 가정 건강

우리 모두는 건강하길 원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 최현일 (효산의료재단 효산의과학생명연구원장)

중장년층, “성공 노후 첫째 조건은 건강”

우리나라 중장년층 10명 가운데 6명은 경제적 여유보다 건강을 노후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보건 사회연구원이 전국의 40~64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가 건강이 노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복지 서비스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57%가 ‘건강 증진 및 보건 의료 사업’이라고 답했습니다. 건강 외에 노후의 성공 조건으로는 경제적 측면이 17.7%로 2위를, 그리고 가족과 심리적 측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YTN 2012. 10. 7.

나이를 불문하고 건강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건강은 비단 개인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국가도 건강 산업과 연관된 산업적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건강을 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있다.

우리 개개인은 어떤 건강을 원하고 있을까?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의 건강함을 가져야 할까?

우리가 원하는 건강은 단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다. 한 사람의 건강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대표적으로 세계 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다. 건강은 이들 요소 간의 통합적인 연결을 필요로 한다. 만약 신체 건강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특별한 질병 없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하루 종일 자기 방에 틀어 박혀서 외부 세계와는 단절하고 우울한 가운데 하루를 보낸다고 하자. 과연 이 사람을 진정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연예인 부부들의 있던 파경... 혹시 우리도 쇼윈도 부부?

- 아시아경제 2012. 5. 20.

쇼윈도 부부, 집에선 각방 쓰고 밖에선 행복한 척?

- 매일경제 2012. 4. 29.

신체 건강하고 사회적인 조건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

남들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 이같이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가정도 많다. 과연 건강함, 특별히 가정의 건강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신체적 건강-집안의 습관, 생활방식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가족 전체의 균형이 깨진다. 한 사람만 병원에 입원해도 가족 구성원들은 삶의 일정들을 변경해야 하며, 여러 사정이 있어 병간호를 하지 못할 경우 가족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한 사람의 신체적 건강이 가족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사람 자신보다 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을 결정하듯이 한 가정의 건강 습관은 가족 구성원의 건강 습관을 결정짓는다. 가정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보자. 그것은 세 가지의 시간을 지키는 연습과 세 가지의 식사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한다. 우리 몸은 리듬을 타고 흐르는 것을 좋아한다. 규칙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원래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이다.

세 가지 시간 지키기는 1. 예배, 기도 시간 지키기 2. 식사 시간 지키기 3.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 지키기이다. 너무나 간단해서 의사의 권유 치고는 유치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 간단한 원칙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지키기는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먼저 정해 두어야 하는 시간이다. 당연한 것도 때로는 힘들 때가 많다. 그러나 이 시간만 정해 두어도 삶이 상당 부분 정리가 된다. 다음은 식사 시간 지키기이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데, 우리 몸의 생리적인 대사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 한다.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리듬감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대사 과정의 균형이 깨진다. 마지막으로 수면

시간과 취침 시간 지키기이다. 수면 과학자들에 의하면 밤 11시, 새벽 1시, 새벽 3시 중 적어도 두 시간대 이상은 잠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즉 밤 10시에 자서 새벽 2시에 일어나도 우리 몸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세 가지 시간에 모두 잠들어 있는 것이다. 밤 10시에 잠들어 새벽 4시에 기상해도 우리 몸은 충분한 잠을 잔 것이 된다. 가정 내에서 이상의 세 가지 시간을 반드시 지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몸에 스며있는 습관을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일단 시작하면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것이다.

다음은 **식사의 3원칙**인데, 1. 정해진 시간에 먹는다, 2. 일정한 양을 먹는다, 3. 골고루 먹는다 이다.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하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몸의 생체 대사 리듬 측면에서 중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일정한 양을 먹는 것인데, 이것 역시 우리 몸의 리듬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정한 양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소화하는 능력이나 대사하는 과정이 쉬워진다. 과식을 하게 되면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많아지고 사용되는 효소와 에너지가 증가한다. 우리 몸에 무리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골고루 먹는 것인데, 곡류와 야채류, 육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다. 건강식이라고 하면서 과일만 먹거나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등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생리 현상을 생각할 때 모두 문제가 많다. 우리 몸은 균형을 원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섭취가 이뤄져야 한다.

간단한 원칙 같지만 생활 방식과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이라 쉽지는 않다. 그러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자.

관계의 건강-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손 잡아주기, 포옹하기

개리 채프먼의 책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제시하는 사랑의 언어 중 세 가지는 가정의 정서적, 관계적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이 세 가지는 한국 문화에서, 특히 한국의 남성들에게 많이 부족한 언어들이다. 가정

에서 관계의 건강, 특히 건강한 부부 관계가 가정의 정서적인 건강의 핵심이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중년 여성들의 질병 원인은 가정 내 관계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특히 부부간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계의 어려움이 신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몸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에 쇼윈도 부부의 기사 제목처럼, 우리 사회는 남에게 보이는 문화이다. 체면 문화이다. 이것이 가정 내에서도 중요한 세계관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가 수면 아래로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전인격적인 건강은 이러한 관계의 치료를 기초로 한다. 관계의 치유를 위해 인정하고, 함께하고, 손 잡아주고, 포용하는 세 가지 사랑의 언어는 가정 내 건강한 관계의 초석이 된다.

첫째, 인정하는 말이다.

특히 필자를 포함한 한국의 남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다. 자신의 잘못을, 약함을, 능력의 한계를 최소한 부부간에는 인정하는 것이 자신과 부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것을 나누고, 입으로 말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도 많은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도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배우자의 수고를, 사랑을 원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보다 큰 정서적 유대감을 준다.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설계도이다.

둘째, 함께하는 시간이다.

함께하는 시간의 총량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 그러나 양의 절대적 부족은 질적인 저하를 가져온다.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를 통한 전인격적인 가정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 중요하다.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이룬 수정 생명체를 영어로 'Zygote'라고 한다. 이것은 그리스어에 어원을 둔 말로 그 본뜻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다'이다. 우리 삶의 기초 또

한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함께하는 시간은 가정 건강의 초석이다.

셋째, 손 잡아주기, 포용하기이다.

인간은 피부와 피부가 맞닿으면 정서적인 느낌이 생긴다. 부모가 자녀들을 안으면 한없는 사랑의 느낌이 생긴다. 선배가 후배를 다독거리면 새로운 용기가 샘솟는다. 요즘 산부인과에서는 신생아를 위해 전신 마사지를 한다. 전신 마사지가 신생아의 신경 발달과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학설에 근거해서다. 이렇듯 스킨십은 정서의 변화를 가져온다. 왜 그럴까?



인간의 발생학적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한다. 앞서 언급한 수정 생명체에서 시작한다. 수정된 하나의 세포인 생명체는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자란다. 우리 몸의 심장, 폐, 위, 간 같은 모든 기관은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기관으로 자리잡아간다. 세포의 개수가 약 100여 개가 되면 크게 두 개의 군 곧, 태반, 양수를 생성하는 세포군과 실제 태아가 되는 세포군으로 나누어지고, 태아가 되는 세포군은 다시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의 세 가지 세포군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뇌와

피부가 원래 같은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외배엽에서 우리의 뇌를 포함하는 신경계와 피부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와 뇌는 정서적 교감이 가능하다. 피부에는 무수한 신경의 말단들이 존재한다. 이 신경의 말단들은 뇌의 일정한 영역에서 모두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다. 스킨십은 가족 건강과 사랑의 띠이다.

영적인 건강-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것은 전인적인 가정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대 전제이다. 크리스천 가정에 있어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겠는가? 신체나 정서적인 관계의 중요함을 의미 있게 해주고 궁극적으로 해석하는 영적인 건강은 사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몸과 영, 세상에 대한 해석을 갖고 있으면 사실 두려운 것이 없다. 질병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 안에서 해석이 되고 삶의 새로운 고백이 된다면 더 이상 질병과 고난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가족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그 기도 시간에 모든 것을 믿고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을 수 있다. 시간을 정해두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자 가장 온전한 건강의 통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건강함

탁월한 영성 신학자이자 저술가요, 교회음악가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마르바 텃은 그녀의 책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질병과 장애 속에서 바라보는 온전함과 희망』에서 자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948년 미국 오키오 주 나폴레온에서 태어났다. 십대 시절, 홍역 바이러스로 चेצי기 망가진 이후 그녀는 늘 ‘건강’과 싸워야 했으며, 지금도 ‘걸어 다니는 종합 병원’이라 불릴 정도로 여러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왕성하게 강연과 저술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쪽 눈은 보이지 않으며(한때 다른 한쪽 눈마저 실명 위기를 겪었으나 간신히 회복되었다), 두 다리는 각기 다른 이유로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 45년 동안 당뇨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저혈압에 시달리고 있으며, 신장을 이식받은 후로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 11번 약을 먹어야 한다. 평생 이렇게 심각한 병고를 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바 텃은 ‘병중에도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이유와 방법을 성경에서 찾고 거기서 찾은 온전함과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녀는 현재 캐나다 리젠틸 칼리지와 Chrstian Equipped for Ministry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건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건강의 정의와 요소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두를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개인과 가정의 건강 요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건강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다. 어떤 가정에는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가정은 관계가 깨져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고, 다른 가정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서로의 약함을 이야기하지만 약함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온전한 건강에 이른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건강함의 극치를 이룬 것이다. 그 어떤 건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의미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이 아닐까?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현재 효산의료재단 의과학생명연구원 연구원장이며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겸임교수이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 병원장을 역임하였다. 2003년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에서 수학하며 기독교세계관 학자들과 교류를 쌓고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실행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크리스천 가정과 여가

☞ 문익수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의 여가실태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이상은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부족한 여가시간을 TV시청이나 낮잠 등과 같은 '휴식활동'으로 보내는 사람이 1위(36.2%)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쇼핑 및 외식, 인터넷 검색 및 채팅 등과 같은 '취미·오락'활동이 25.4%를 차지하였으며, 종교활동 및 사회봉사 등과 같은 '사회 및 기타'활동, 스포츠 참여활동이 각각 3, 4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희망하는 레저활동으로 '관광활동'이 36.2%, '스포츠활동'이 24.9%, '취미·오락·휴식·기타 활동'이 22.6%, '문화예술활동'이 16.4%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과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식과 쇼핑 및 오락 등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만 보며 달리는 현대사회의 모습에서 이러한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일(job)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을 놀이로 즐기지 못하고 다음 일을 위한 준비단계로만 여깁니다. 이러다 보니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고 각자 개인을 위한 레저활동(잠, 오락, 쇼핑, 인터넷 검색 등)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중한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경품권 스티커를 구입한 후, 어쩌면 당첨의 기쁨이 나에게 올 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이란 문구를 보는 순간 '그럼 그렇지'라고 말하며 아쉬워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상황이 종종 벌어지지요. 흔히, 아내와 자녀들은 아버지가 시간이 나길 고대하며 기다리다 막상 그 때가 왔을 때 가장의 한마디 '다음에'라는 말을 듣고 실망하곤 합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창 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쉬라고 권면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마 11:28). 유진 피터슨이 말한 바와 같이 안식의 일차적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할까? 혹은 하지 말아야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완성하시고 쉬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을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진정한 쉼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거룩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기성세대들은 갑자기 주어진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세대들은 일보다 여가를 우선시하여 오히려 여가에 중독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는 현상이라던가 주말이면 산으로 들로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도로가 꽉 막히는 현상 등이 이러한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과연 그리스도 가정의 여가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여가에 대한 성경적 관점

야고보서 1:17에 따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 오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선물 중의 하나입니다. 제임스 팩커 (James Packer)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여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가는 하나님의 선물로써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휴식, 기분전환, 즐거움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제공한다. 여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존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주고, 인격적 관계를 형성시켜 주며 가족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세상과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여가는 감사, 자기표현, 자기 성취, 창의력, 개인의 성장 및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제공하여 준다.”

여가는 영적, 신체적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고(막6:31), 친교를 증진 시키며(시 133:1), 성도와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을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고(고후 5:18), 참된 삶의 가치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신성한 기쁨과 즐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줍니다(전 8:15).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여가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가정의 성장에 필수적인 친밀한 정서와 인격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데 여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가정의 여가활동

크리스천 가정은 시간이 날 때 여가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예배하듯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은 로마서 12장 1~2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즐기는 삶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대화하듯 가족 간에도 즐겁고 의미있는 여가활동을 통해 가족 간에 유대감과 정서적 교감을 다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밖에 나가 즐길 여유가 없다면, 집에 모여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눠 보세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여가를 즐기기를 원하는지 아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가정에서의 여가의 시작입니다.

여가를 통해 크리스천 가정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즐기는 모든 여가활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크리스천 가정은 세상의 문화와는 구별된 여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가활동이 있지만 크리스천 가정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여가를 선택 할까요?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십시오.

| 크리스천 가정을 위한 여가 체크리스트 | | |
|-----------------------------------|---|-----|
| 여러분이 하는 활동은 | 예 | 아니오 |
| 1. 의심스러운 것이 있나요? | | |
| 2.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요? | | |
| 3. 상해를 가져오지 않을 만큼 안전한가요? | | |
| 4. 기도를 통해 시작했나요? | | |
| 5. 가족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얻게 하나요? | | |
| 6. 여가활동을 즐기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괜찮나요? | | |
| 7. 나에게는 좋으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나요? | | |

여러분이 선택한 여가활동은 위의 체크리스트에서 몇 개가 ‘예’로 나왔나요. ‘아니오’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가족과 대화를 통해 다시 결정해 보십시오. 적극적 의미에서 우리가 여가에 대한 청지기적 특권과 책임을 다하려한다면, 하나님과 사람과 아름다움과 고상한 모든 것에 가장 가까워지는 여가활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추구하느라 최선의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것을 추구하느라 좋은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 가정에서 지혜롭게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 기도(예배)에 대한 헌신 그리고 가정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을 섬기지 못하고 종교적 활동에만 몰두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흥미 또는 취미와 가족 사이에 적절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취미나 흥미에만 맞춰 여가를 즐기려 한다면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즐거움이 아닌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여가와 일에 있어서 조화로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할 때에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여가를 위해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되지만, 일을 위해 여가를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함께하듯, 가족들이 함께 여가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기쁨을 얻고 진정한 동역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이 모인 장소가 바로 여가를 즐기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입니다.



문익수 고려대학교에서 체육학을 전공하고 오레곤대학교대학원에서 체육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기독교 학문연구에 상임이사 및 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행정안전부 자전거활성화위원회 위원장과 서울특별시 자전거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사랑의 교회 사랑패밀리센터에서 스텝으로 섬기고 있다.



건강한 크리스천 가정의 시작

6 엄혁주 (김포서초등학교 교사)

얼마 전 우리 반 학부모가 찾아와 상담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건강이(가명)가 자꾸 친구들을 때리고 못살게 군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먼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다만, 애 아빠가 멀리 지방에 있는데 자주 만나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주말이면 건강이와 어디든 가려고 노력해요.”

“평일에는 자주 대화를 하시나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일찍 올 때는 공부도 봐주고 대화도 하는 편이에요.”

“그럼, 건강이와 아버지는 자주 통화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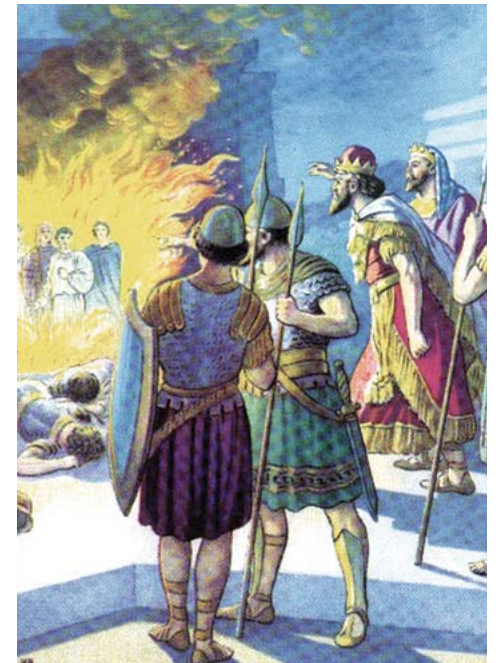
“통화는 거의 못해요. 대신 만나면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캠핑을 가기도 해요.”

이러한 대화는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평소에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를 외치며 산으로, 들로 떠납니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면 가족들은 다시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삶에 파묻히게 되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일까요?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방황하는 것일까요?

가족의 소중함

올해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무려 15일 동안이나 지속된 폭염으로 전국이 마치 용광로처럼 찢절 끓었습니다. 낮에는 평소 시원한 그늘에서 쉬거나 가볍게 운동하러 나오던 이들의 모습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로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폭염 때문에 사망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온이 평상시보다 몇 도만 더 올라가도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하물며 풀무불은 어떻겠습니까? 풀무불은 더워서 못 참을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열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에게 절하라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풀무불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불길 속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불 속에 있다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곧 에덴(Eden)이고 기쁨(delight)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서로 믿고 몸과 마음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또한, 가정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쉼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기 힘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평상시에는 오히려 남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쩌다 시간이 남으면 함께 레저를 즐기는 것으로 가정에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레저 활동일까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딘가 멀리 떠나서 레저 활동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고단한 일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느끼는 평안함. 이러한 소소한 행복을 가정에서 얻게 될 때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가족 구성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 사회는 여유를 가지고 가족 간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거리감이 생겨 가정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고 사랑을 주고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지지받은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해냅니다.

이 모든 것이 '가족 간의 대화'에서 시작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간을 내어 가족 간에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맞추며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간의 대화

가족 범죄나 일탈 등은 최근 언론에서 자주 접하는 단골 화제입니다.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화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알아갑니다. 가족 구성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 사회는 여유를 가지고 가족 간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가족 간에 대화를 나눠야 하겠지만 정작 시간이 나더라도 가족 간의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간에 거리감이 생겨 가정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고 사랑을 주고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일을 이뤄낸 사람 뒤에는 항상 그를 지지하고 응원해준 가족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지지받은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해냅니다. 이 모든 것이 '가족 간의 대화'에서 시작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간을 내어 가족 간에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맞추며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대화에는 어떠한 힘이 존재하는가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정서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나누는 농담, 잡담, 논쟁 등 모든 종류의 대화는 정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농담을 하면 농담하는 사람의 웃기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듣는 사람의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고 이로 인해 어색했던 분위기가 풀리는 등 부드러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반면 그 의도가 어긋나 듣는 이가 언짢은 기분을 느낀다면 상황은 완전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유발된 정서는 상황을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긍정적인 대화를 통한 긍정적인 정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말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눈과 몸으로, 말을 하면서부터는 가족들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바른 자아(self)를 형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자아는 상대방과의 경험을 통해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즉, 사랑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엄마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해간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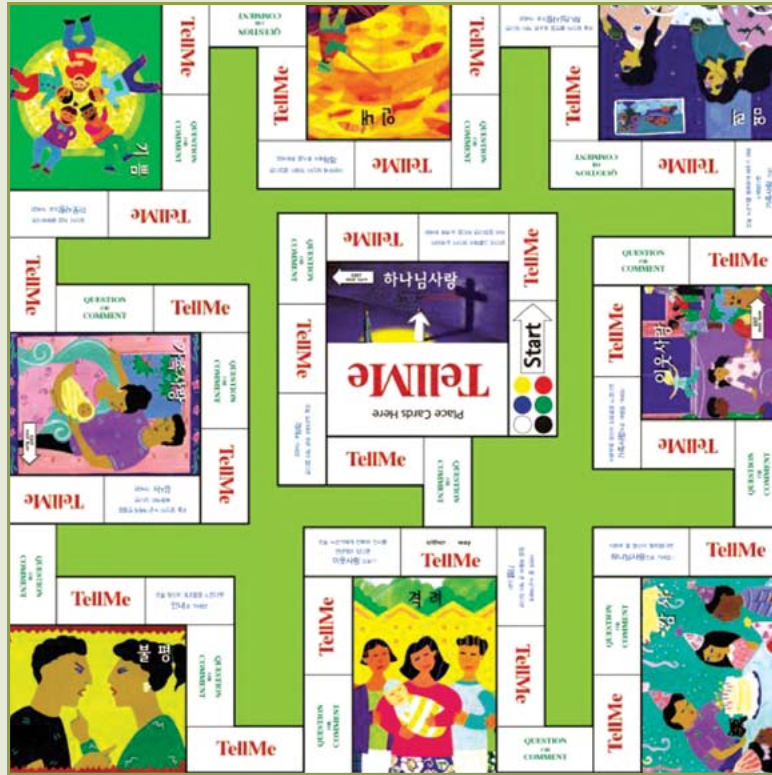
리아 자키호는 여느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성대결절 진단을 받고 종양 제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후 5년 동안은 말을 하기 어려웠고,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대화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단절로 그녀는 우울증이라는 정서적 질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를 떠올리며 "우리 가족은 말이 많이 하지만... 전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던 리아는 카드에 자신의 남편과 아이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적던 것이 200여 장의 카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서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며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보드 게임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언게임(Un-Game)입니다. 이 언게임이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텔미(TellMe) 게임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TellMe 게임을 통해, 기독교 가정에서 대화를 통한 여가를 즐기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ellMe 게임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족의 대화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길면 길수록 좋겠지요? 우선, 가족 수에 맞게 말(바둑돌, 동전 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거나 질문할 때 적을 종이와 필기구 그리고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격려, 칭찬, 위로, 공감 등을 느낄 때 붙여줄 수 있는 스티커를 충분히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TellMe 카드를 준비합니다. 미리 작성된 카드를 사용해도 좋고, 각자 궁금한 사항을 카드에 적어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가요?" |
| "서로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하나요?" |
| "가족들이 서로의 고민을 쉽게 털어놓는 편인가요?" |
|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에게서 위로를 받은 적이 있나요?" |
|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레저 활동, 놀이, 운동이 있나요?" |
| "가족과 같이 어떤 여가-레저 활동을 하고 싶은가요?" |
| "가족들과 같이 하고 싶은 신체활동은 무엇인가요?" |
| "당신은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2012년도에 꼭 전도하고 싶은 구성원이 있나요?" |
| "당신의 가족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
| "당신의 가족 모두가 새벽 예배에 함께 참석한 적이 있나요?" |

준비가 다 끝났으면, 보드판(그림 참조)을 펼칩니다.
그리고 다음의 게임 방법을 숙지한 후 시작하면 됩니다.

- 1) 각자의 말을 보드의 중앙 출발선에 놓습니다.
- 2) 순서(시계 방향)대로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이동합니다.
- 3) "TellMe" 칸에 도착하면, 카드를 뽑아 크게 읽고 2~3문장으로 답을 합니다.
- 4) 자신의 차례나 순서가 아니면 침묵합니다.(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니까요.)
- 5) 사용된 카드는 따로 구분하여 둡니다.
- 6) 다른 참가자들의 대답을 잘 듣고 메모해뒀다가 "질문과 코멘트" 섹션에서 충분히 활용합니다.
- 7) 한 사람이 "TellMe" 칸에 3번 연속 도착할 경우, 다시 한 번 주사위를 던질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양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에서 TellMe 게임을 활용하여 즐겁게 대화를 시작하고 이를 통해 더 풍요로운 가정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도 공생애(公生涯) 기간 동안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기도)하셨으며, 제자들과도 묻고 답하는 식의 대화를 통해 모든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의 관점에서, 부모의 취향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녀들은 그냥 따라주길 바라지 않았나요? 그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던가요? 그렇지 않았다면, 남편, 아내, 자녀의 현재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대화가 끊이지 않는 가정,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그곳이 바로 에덴동산임을 잊지 마세요.



엄혁주 김포서초등학교 교사로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체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신체활동을 통해 바른 품성을 기르는 데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에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교총 전문위원, 한국 결령협회 이사, 경기도 교육청 창의 서술형 평가 개발위원과 김포교육청 수업 혁신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보내는 사람

주소

이름

연락처

-

제40335호

발송유효기간
2012.5.1~2014.4.30

용산우체국

받는 사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월드뷰 담당자 앞

-

CMS 출금이체 신청서

Table with 5 rows and 5 columns: 신청인 정보, 상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후원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월납입일, 매월, 25일, 30일

【CMS 출금이체 약관】

- 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 순위는 해당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 6.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여 출금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기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계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위 CMS 출금이체 약관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따라 위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월드뷰 편집부에서는 독자들의 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드뷰를 읽고 느낀점이나 바라는 점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선정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후기를 보내실 때는 이름과 전화번호, 직업, 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리뷰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2. 10월)

회원후원

2천5백 김민지, 박진호 3천 구재형, 김성권, 김창현, 조성진 3천5백 가월현, 강동훈, 김희원, 나윤수, 노승욱, 노주하, 박능안, 백경은, 백선희, 생명의강, 영음사, 유경상, 정세열, 진성자, 최원길, 한민좌, 한진영, 황보난이 5천 고은하, 구성환, 권명중, 권지연, 김원평, 김경식,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남진, 김대용, 김도희, 김미정, 김병국, 김봉오, 김성민, 김성은, 김성찬, 김승택, 김영윤, 김정명, 김정식, 김정원, 김정준, 김준, 김준희, 김철수, 김태윤, 김항아, 김혜창, 김효태, 박광재, 박기연, 박상균, 박승룡, 박준모, 박찬규, 박해일,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철호, 신기혁, 신찬용, 심정하, 안현상, 양영태, 우수민, 유은자, 유창은, 유충열,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택재, 이명진, 이민화, 이승환, 이영홍, 이원배, 이윤희, 이은순, 이인수, 이진영, 이한길, 이항숙, 임선재, 임재영, 임춘택, 임형준, 장옥경, 장한일, 전정진, 전종국, 정수빈, 조은아, 조인진, 조혜경, 주경식, 지경순, 천하은, 최광수, 최동희,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7천5백 고상섭, 권오현, 김영숙, 민수진, 백은미, 이주희 9천 김찬호 1만 강은정, 강효식, 고은님, 권민규, 권성아, 권순범, 김경원, 김경희, 김고운, 김고윤, 김동우, 김성경, 김성상, 김성인, 김세령, 김세완, 김세중, 김영옥, 김요한, 김원, 김은덕, 김은수, 김은혜, 김정일, 김정호, 김정희, 김종국, 김종훈, 김진아, 김창현, 김홍철, 나동훈, 남서희, 류화원, 마민호, 박강국, 박능안, 박대원, 박두한, 박영주, 박유진, 박정욱, 박종원, 박종훈, 박진규, 박창우, 박태양, 박혜경, 박희주, 서화진, 소종화, 손현택, 송미정, 송중철, 신상형, 신성자, 신성혜, 신현주, 신호기, 안석, 안영혁, 양병국, 양성만, 양성일, 양행모, 오지순, 원호영, 유건호, 유영준, 유지황, 유해무, 윤동수, 윤상훈, 윤여근, 이경숙, 이관후, 이규현, 이길형, 이명동, 이명수,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상수, 이상수, 이승엽, 이시영, 이신영, 이언구, 이윤석, 이윤재, 이은자, 이은주, 이정기, 이정길, 이종국, 이종철, 이준성, 이지연, 이한길, 이혜리, 이행연, 임일택, 장선, 장승재, 장인숙,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상록, 정은희, 정정숙, 정현주, 제양규, 조백형, 조용현, 주성철, 차정규, 최상열, 최성두, 최영찬, 최진우, 최진호, 최한빈, 추진연, 한인관, 한정호, 한혜실, 한찬영, 허 현, 현승건, 홍선호, 홍철의, 황세환, 황태연, 황혜정 1만5백 정경식 1만5천 김선화, 김효순, 정상섭, 홍혜진 2만 대훈, 김광순, 김영완, 김옥태,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노용환, 박승희, 박영혜, 박한, 배성민, 배은경, 변우진, 손항아, 우시정, 이대환, 이명희, 이정규, 이현정, 전광학, 전중화, 최용준 3만 김동원, 김방룡, 김상범, 김승남, 박문식, 박상진, 박신현, 박연호, 서성록, 신경호, 신혜윤, 오의석, 우병훈,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이창국, 임희옥, 장수영, 정동섭, 정은애, 추태화, 황의서, 황정진 4만 김혜정 5만 영택, 강용상,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김홍섭, 서진희, 손봉호, 송인규, 윤석찬,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한일, 한윤식, 현은자 6만 강진규 10만 강석훈, 김승태, 김원수, 김익원, 김재정, 박상은, 양인평, 전광식, 최태연, 한정화 11만 김재정 12만 김현승, 이상웅 20만 차명실 24만 양성만 30만 기호진, 김승득, 김승욱, 유혜연 오십만 오형국

기관후원

7천5백 영암교회 1만 빛과소금교회 3만 두레교회 5만 개봉교회, 다운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예성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군산성광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명성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자운교회, 참빛교회 20만 국군중앙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1백만 한국성결교회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내역은 매월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삶 속의 수많은 생각들을 풀어내는 유일한 기독교세계관 잡지 『월드뷰』.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방문하시거나 CMS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월드뷰』의 비전에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가을...
가만히 찾아오는 바람에

가을이면...
아침 햇살의 맑음에

가을이기에...
모든 것이 따뜻이 빛나기에

나는 행복하다.

-가을 경남 밀양의 어느 길에서 만난 안개 속에서



김자연, 생명의 기쁨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김자연의 화면은 경쾌한 리듬과 화려한 색채로 물들어 있다. 경쾌하다 못해 태양 광선을 듬뿍 들이마신 것처럼 건강미가 넘친다. 봄바람이 불듯 화사한 색상들이 나뭇거리고 나비가 꽃에 날아와 앉을 때처럼 기쁘하다. 생명이 고동치는 자연의 숨결과 마주하면 마음이 술렁이듯이 김자연의 그림도 자연의 경험에서 오는 설렘을 화면에 담고 있다. 일종의 '시각적인 자연 여행'을 즐기는 느낌이다. 이렇듯 김자연은 자연을 모티브로 한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김자연의 작품은 생태계의 이미지를 닮아서인지 친숙하게 느껴진다. 그림을 보고 있자면 푸르름으로 색칠한 숲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그보다 흥미로운 것은 '대상과의 사귄다'이다. 만일 예술가들이 '관찰'에만 몰두한 나머지 '대상과의 사귄다'를 잃어버린다면, 감동적인 작품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상과의 사귄다'에서 오는 은밀한 희열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교감의 즐거움을 전달하기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자연의 작업에서 두드러진 뚜렷한 색채와 리듬감은 자연과의 긴밀한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름다운 황혼녘의 드라마에 정신이 팔리듯이 그의 그림도 자연 경험에서 오는 충만한 감정을 화면에 담고 있다.

그래서 그의 화면에 등장하는 이미지들 역시 자연에서 빌려온 것이다. 식물의 잎사귀, 줄기, 나뭇가지 등 모두 우리가 눈만 돌리면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줄기가 화면 중앙이나 귀퉁이에 자리하여 공간의 균형을 잡아주거나 크고 작은 잎사귀들과 화려한 색상은 무성한 숲을 연상시키는 식이다. 그 밖에도 달과 산, 창공을 암시하는 이미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들은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작가는 대상 자체보다 자신의 감관에 자연물이 어떻게 작용하고 효과를 미치는지를 중시한다. 바깥 대상이 내면에 들어와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키는 상태를 응시하고 또 나타내고 싶은 것이다.

생명의 소리

물론 그가 처음부터 자연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은 아니었다. 김자연은 90년대에는 물성적인 작업, 2000년대 초에는 단색의 평면에 드로잉을 연동시킨 바 있다. 특히 2000년 이후로는 절제된 듯하면서도 함축적인 표현 세계를 구축해왔는데 드로잉을 통한 힘의 배분, 능숙한 질료 처리, 매끄러운 공간 운영으로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김자연 홍익대학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고, 지금까지 성곡미술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인사아트센터, 빛갤러리 등에서 30여 회의 개인전 및 여러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현재 오리진화협회전 회원과 한국미술협회회원으로 있으며 홍익대학교 미술교육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Habitat, 53x45.5cm, 혼합재료, 2007

이때의 작품들은 문인화처럼 채운 부분보다 비워진 부분들이 많았다. 만들었다기보다 우연히 생성된 것처럼 무리가 없고 자연스러웠다. 색을 절제한 것도 그렇고 여백을 강조한 것도 그렇고 작가는 수묵 대신 서양화의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이 다를 뿐 성격상 동양화와 유사점이 많았던 것 같다. 구체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 그림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로움을 표상하는 화풍을 구사하였다. 말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무언의 그림 언어로 표현하였다.

작가는 2000년대에 다시 한 번의 변신을 꾀하였는데 이것이 지금의 화풍에 가장 근접한 양식, 즉 보다 직접적인 이미지와 에너지가 공급된 그림으로 귀착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륜이 쌓일수록 색조를 탈각해 버리거나 무표정해지기 쉬운데 그의 경우는 생기가 돌고 젊어졌으니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화면 속에 컬러와 몸짓이 분주히 드나들면서 잠잠하던 공간이 어느덧 시끌벅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해버렸으니 말이다.



1. Habitat, 53x72.5cm, 혼합재료, 2007 2. Habitat, 80x117cm, 혼합재료, 2007

기본적으로 그의 그림은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생명의 소리란 침묵을 깨는 소리이고, 활력을 부여하며, 자연계의 온갖 아름다움과 호흡하고 교감하는 상태를 말한다. 생명의 울림에 반응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자연을 받아들인다. 맑은 햇빛, 청정한 숲, 신선한 공기, 넓은 하늘, 푸른 들판, 바람 소리, 봄날 아지랑이, 시냇물, 뭉게구름 등 대지가 기쁨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신비한지 알게 된다.

그에게 그림은 생명의 청정한 소리를 담아둔 음반과 같다. 매마른 감성을 회복하는 데는 바람과 비, 그리고 흐르는 물만큼 좋은 음악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뭇잎이 나부끼고 잔잔한 바람이 불며 식물들의 쑥쑥 자라나는 움직임도 놓칠 수 없는 장면이다. 계절마다 매번 새 옷을 갈아입을 뿐만 아니라 쉬과 여유를 제공하는 자연물은 참으로 고마운 존재이다. 요컨대 그의 작품은 생명의 동향에 귀를 기울이되 자연에 대한 풍부한 정서적 반향에서 수분을 섭취하고 궁극적으로는 신의 은총이라는 햇빛을 맞으며 자라난 예술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은 어디에도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다. 특별한 공간 구성도, 주도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전면회화처럼 공간이 캔버스 바깥으로까지 확산되어 나갈 기세이며 화면은 외부의 속삭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자연에서 흘러온 여러 표정을 대단히 풍부한 음색으로 직조해가는 것이다. 자연의 모습을 이처럼 추상적으로 변용시켜 생의 절정과 환희를 나타내는 것이다. 작렬하는 생명의 불꽃이 화면 여기저기에 피어있는 듯한 기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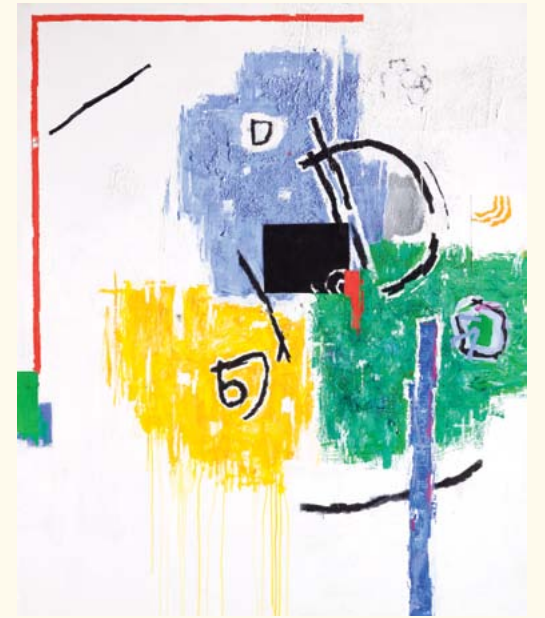
최근 그의 작품에서는 '원색적인 색조'와 '유희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구체적인 이미지보다 색깔 자체만으로 충분히 생명의 걸을 표출하고 있다. 화면은 각종 원색의 물결로 너울거린다. 작가는 색조를 생명의 맥박을 건져 올리는 매개물로 사용하고 있다. 자연물들이 봄철에 가지개를 활짝 펴듯이 새싹을 틔우는 생명의 순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생명의 벽찬 감동과 유희성이 농후한 신체의 리듬을 작품에 보태고 있다. 작품을 들여다보면 색채 언어와 더불어 아기자기한 드로잉이 자리 잡고 있다. 하나하나의 드로잉이 '표정'을 지니고 있거니와 스스럼이 없다. 예술은 유희적 충동에 의해 발아된다고 했던가. 어린아이가 크레파스를 들고 도화지에다 뭔가를 끄적거리듯이 작가는 붓과 목탄으로 화면에 흔적을 남긴다. 그렇다고 무의식적인 자동기술법처럼 혼잡스럽거나 무질서한 것도 아니다. 작가는 공간의 정황을 살피가며 적재적소에 '낙서'를 날렵하게 송구한다.

회화에선 이런 작업을 드로잉이라고 부른다. 흔히 드로잉은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전의 습작 정도로 받아들여지지만 그의 경우는 자유스런 선의 효과를 회화에 적용시킨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드로잉은 그림에 풍차를 돌리는 바람처럼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덕에 그의 작업은 추상적이더라도 삭막함과 건조함, 그리고 냉랭함을 피할 수 있다. 어쉴픈 논리의 지배를 받기보다 생명 자체에서 얻어진 것을 적극 표출하고 있다. 이 점이 바로 그의 회화가 풍부한 시적 정취를 간직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천부의 손길

축복의 비를 맞고 자란 나무는 푸르른 잎사귀와 눈부신 꽃, 다디단 열매를 맺듯이 그의 그림은 소망스런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사사로운 욕구보다 크고 절실한 무언가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생명의 기쁨이 세상의 한 귀퉁이에 있기보다는 세상의 중심에 있게 하기 위해 애쓴다. 탈무드에는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으나 우리가 미처 즐기지 못한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세월의 긴 회랑(回廊)을 숨가쁘게 뛰어다니는 동안 우리가 정



Habitat, 53x45.5cm, 혼합재료, 2007

작 보아야할 것들, 감사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실제 적극적인 관찰이나 폭넓은 조망에는 상당히 인색한 편이다. 그의 그림이 흥겹고 즐거운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시키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김자연은 발걸음을 늦추고 시선을 집중하여 그분이 보여주시는 모습을 찬찬히 성찰한다.

김자연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생명의 물결로 가득 차 있는 자연에서 우리는 한 치의 빈틈도 발견할 수 없다. 어찌 그뿐이랴.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자연 세계를 따라 '원색의 마음'으로 파랗고 노랗게 물들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서성복 인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현대회화의 발자취』,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우리 미술 100년』이 있다.

가족의 여가활동으로서 TV를 위한 변명

🎧 박진규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가족의 여가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과 경험입니다.

텔레비전은 시간과 경험을 함께하려는

가족을 위해 좋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손쉬운 방법이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의 여가활동으로서

TV를 위한 변명은 그럴듯합니다.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여가활동 1순위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응답자의 59.3%가 선택했다는군요. 문화예술 관람, 자기 계발, 스포츠 활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가활동을 묻는 질문에는 TV·DVD 시청이 61.7%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이 텔레비전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는 있지만 사실 별로 원하지 않는 활동인 셈입니다. TV 시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책과 텔레비전을 비교할 때도 보입니다. 우리는 독서가 TV 시청보다 훨씬 "건전한", "유익한",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 한 일간신문이 "거실을 서재로"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우리의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TV를 책으로 바꾸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보편적 인식을 눈치챈 텔레비전은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나 <TV, 책을 말하다>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스스로의 위치를 책 아래로 낮추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텔레비전은 가족의 건강하고 유익한 여가를 망쳐버리는 주범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큼니다. 텔레비전을 본다는 건 소파에 누워 별 이롭지 않은 것들을 각자 멍하니 쳐다보며 시간을 "때우는" 것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주어진 여가 시간을 TV에만 의존해 흘러보낸 후 하염없이 밀려드는 허탈감을 떠올려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TV를 위한 변명을 해보려 합니다. 가족의 여가를 위해 TV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려 합니다. TV도 여가 "선용"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앞의 통계에서도 보듯이 우리에게 원하는 여가활동이 있지만 선뜻 하지는 못합니다. 이 조사에서는 그 이유를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행을 비롯해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활동들은 대부분 돈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지요. 이에 비해 실제 여가활동으로 1위를 차지한 TV 시청에는 별다른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활동이란 말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조사기관 TNmS 조사

에 따르면 소득 수준과 TV 시청시간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일일 평균 TV 시청시간은 4시간 30분이었고, 6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2시간 28분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자원이 필요한 다른 활동에 비해, 저소득층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TV 시청을 통한 여가활동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가장 '평등한'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블이나 위성, IP TV 등 채널수가 많은 유료방송에는 비용이 들지만 아직 지상파 위주인 TV 문화를 생각하면 TV 시청은 소득이나 계층의 차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여가활동입니다. 여가에 소비할 자원이 넉넉지 않

은 사람들을 위해 마음 편히 즐기고 쉴 수 있는 문화를 제공할 수 있다면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TV는 가족 사이의 소통을 만들어내는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가족 사이의 공통 화제나 대화 주제를 찾기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자녀들과 장년/노년층이 함께할 수 있는 관심사가 사라져가는 형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TV를 보면서 이야깃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열광하는 아이돌 그룹이 노래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토크 프로그램을 보면서 서로의 고민거리를 조심스레 꺼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의 전성기를 상상해볼 기회도 생기고, 매일 저녁 뉴스를 함께 보면서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채널이 많아지고 전문화되면서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기대하는 건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녀들은 어른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에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문화는 너무 가볍고 알팍하다며 무시합니다. 그래서 작년 초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어 온 세대가 공감하고 즐겼던 "세시봉" 열풍의 기억은 더 소중한입니다.

가족의 여가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과 경험입니다. 텔레비전은 시간과 경험을 함께하려는 가족을 위해 좋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손쉬운 방법이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의 여가활동으로서 TV를 위한 변명은 그럴듯합니다. 물론 잘 활용하려는 가족 구성원들의 의지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때 말입니다.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책에 담긴 생명의 언어

현은자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바바라 쿠니(1917-2000)는

산업화 전 미국인들의 삶을 서정적인 글과

그림으로, 인간과 자연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조화로운 세계를 섬세한

언어와 그림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 중 그의 마지막 작품인 <바구니달>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을 앞두고 TV에서 언어의 힘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일본 학자가 물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하여 들려주면 육각수로 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바 있는데, 그 실험을 포도주와 밥에게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은 포도주는 좋은 맛을 낸 반면, 미워한다는 말을 들은 포도주는 맛이 덜했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달간 들은 밥은 희고 향긋한 누룩 곰팡이를 피운 반면,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밥은 시커멓게 냄새나는 곰팡이를 피웠습니다. 같은 실험을 콩나물, 채소, 그리고 닭, 소에게도 해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식물은 물론 동물의 성장을 촉진시켰던 것입니다.

언어의 힘은 이토록 큰데 정작 우리는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죽이는 언어에 더 익숙해 진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인터넷과 대중매체에서는 매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말들이 넘쳐납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가족들도 거리낌 전혀 없이 경박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에 바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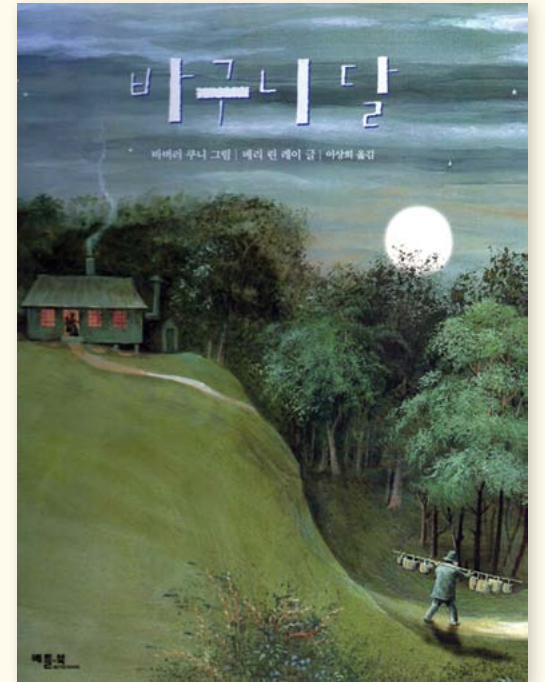
유진 피터슨은 그의 책 <부활을 살라>에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혼란은 언어의 오용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p.438). 창세기 1~3장은 창조에 사용된 언어와 인간을 타락으로 이끈 언어를 보여줍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 6일간 말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진 창세기 1장 28절의 창조세계를 다스리라는 첫 과제도 말씀으로 주어졌고 아담도 동물의 이름 짓기(창 2:19-20)를 통해 창지기의 사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언어는 타락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선악과를 사이에 두고 이루어진 뱀과 하와와 아담의 언어는 유희하고, 거짓말하고, 공범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피하고 핑계대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낙원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창조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른이나 어린

이 할 것 없이 모두 언어를 철저히 교육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은 성경에서 사랑과 생명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보는 그림책을 통해 언어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혹은 작가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어린이를 위해 글을 쓰는 사람들은 희망과 사랑의 언어를 말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 어두운 면, 부조리한 면을 그려낼 때에도 인간과 창조 세계에 대한 따뜻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아동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까요? 그림책에서는 모든 것이 생명을 얻고 인격화됩니다. 토끼, 곰, 생쥐, 호랑이, 오리, 물고기, 나무, 꽃과 채소, 벌레가 이름을 얻고 말하고 인간처럼 행동합니다. 무생물조차도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달과 별, 바위와 언덕, 바다, 강물, 계절과 같은 창조 세계뿐 아니라 집, 자동차, 인형, 책과 같은 인공물도 살아서 움직이며 인간과 친구가 됩니다. 그림책에 등장하는 어떤 것도 전형화되거나 일반화되거나 대상화되지 않습니다. 인격화된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이야기에 독자들을 초대합니다.

바바라 쿠니(1917-2000)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가입니다. 산업화되기 전 미국인들의 삶을 서정적인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그의 작품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그의 마지막 작품인 <바구니달>(1999)을 소개하겠습니다.

「바구니달」에는 '나'라는 소년이 화자로 등장하여 오래 전 미국 동부의 한 산골 마을에서 바구니를 짜며 살아가던 그의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둥근 보름달을 바구니달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때 소년의 아버지가 바구니를 팔러 허드슨에 가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아버지에게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조르지만 아버지는 좀 더 크면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소년이 아홉 살이 되자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허드슨으로 갑니다. 생전 처음 보는 부산한 도시 모습에 소년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수많은 거리와 상점을 지나면서 엄



마한테 허드슨 얘기를 어떻게 할까 곰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그들을 놀립니다. "어이, 산골짜 촌뜨기들! 저 촌뜨기들은 바구니밖에 몰라!" 그러나 아버지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허드슨 사람들의 놀림으로 상처를 받은 소년은 집에 돌아온 후 우울해 하고 그 원인을 묻는 엄마에게 그 사건을 털어놓고 엄마는 "나무들은 우리 마음을 알거야. 허드슨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신경 쓸 것 없단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울분을 삭히지 못한 소년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창고에 들어가 쌓아놓은 바구니를 걷어차지만 아버지가 만든 바구니는 튼튼해서 전혀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 때 나타난 조 아저씨는 그 모습을 못 본척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람의 말을 배워서 음악으로 만들어 노래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바람의 말을 듣고 시를 쓰며 자신들은 바람의 말로 바구니 짜는 법을 배웠지. 그리고 바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누군지 안다" 라고요. 그래서야 소년은 바람이 자신도 선택해주기를 바랍니다.



난 숲으로 갔어요.
그리고 귀를 기울였지요.
창고로 돌아와서도 귀를 기울여 봤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난 나무 쪽대를 집어 들고 바구니를 짜기 시작했지요.
위로 올리고, 밑으로 넣고, 위로 올리고, 밑으로 넣고...
그때까지도 바람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밤이 되었을 때, 난롯불도 잠잠해지고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예요.
바람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애, 밖으로 나와 봐!”
난 바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위로 아래로, 한밤중의 짙은 나뭇가지 그림자를 쫓으면서
바람이 바구니를 짜는 곳으로 갔지요.
절반쯤 짜여진 희미한 달빛 속에서 모든 나뭇잎들이
내게 절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날 아침, 나뭇가지들이 집을 스치는 소리에 깰습니다.
“나무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구나.”
하면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나무들이 자라면 바구니들도 늘어나지.”
난 알았습니다.
나무들이 키우는 것이 내가 만들게 될 바구니들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바람이 내 이름을 불렀던 거지요.

바바라 쿠니의 작품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인간과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세계가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숲속의 바람은 인간을 지켜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게 말을 건네고 이름을 불러주고 바구니 짜는 법을 가르칩니다. 나무는 그들에게 바구니를 짤 나뭇가지를 줍니다. 마침내 바람은 아버지와 조 아저씨처럼 소년에게도 말을 걸어 오고 소년은 나무에서 자신이 짤 바구니를 보게 됩니다.

간혹 바바라 쿠니의 작품을 즐기지 못하는 어린이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화려하고 눈길을 끄는 시각 언어에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려한 그림책이나 영상매체는 시각적인 상상력을 제한하며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에 익숙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바라 쿠니의 작품은 그림이 화려하지도 않고 글(텍스트)의 비중이 커서 독자들에게 공란을 채워가며 읽을 것을 요구합니다. 즉, 단어가 묘사한 그대로 상상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즉, 그림이 표현하지 않은 부분을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려보게 합니다. 이것을 문학적 용어로 ‘구체화’라고 합니다. 다음은 주인공 소년이 허드슨 시내에서 본 상점의 모습을 묘사한 대목입니다.

난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과 바구니를 맞바꾸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런 다음, 엄마가 부탁한 걸 사러 록맨 상점으로 갔어요.
통밀 가루, 하얀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생강 건포도, 레몬과 돼지 기름, 강낭콩, 양파, 강통에 든 토마토...
상점 진열대 앞에서 난 그 화려한 빛깔에 눈이 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강통에 붙어 있는 상표들, 가지런히 줄 맞춰 놓은 과일과 채소들,
커다란 금빛 치즈, 분홍빛 음료수와 하얀 달걀들 말이예요.



언어가 만들어내는 리듬을 즐기며 진열대 위에 놓인 식품을 상상하면서 읽거나 듣지 않는다면 이 음식 목록은 재미없고 의미 없는 단어의 열거에 불과할 것입니다. 언어와 문학을 사랑하는 어른과 함께 그림책을 읽는 어린이의 마음속에서는 창조세계와 인물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들은 인격화되고 어린이 독자 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보름달이 뜬 밤에 아버지와 같이 바구니를 메고 허드슨으로 간 소년, 소년의 이름을 부르는 숲 속의 바람, 달빛 속에서 소년에게 절하는 나뭇잎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어린이들은 자기 집 앞에 서있는 작은 나무, 길가에 난 보잘것없는 관목과 풀 한 포기 가 들려주는 이야기에든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표 저서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동문학 보기」, 「기독교 유아교육을 위한 시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그림책의 이해 1, 2」, 「세계 그림책의 역사」, 「그림책의 그림읽기」, 「그림책과 예술교육」, 「즐거움 그림책 쓰기」가 있다.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의 그림책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복음과 문화를 번역하라

C. S. 루이스 안내서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C. S. 루이스와 기독교 세계로』
캐스린 린즈쿡 저 | 홍중락 역 | 홍성사

또 하나의 탁월한 저술 전략

지금까지 유명인을 소개하는 저서는 '전기'가 주류였다. 전기는 탄생부터 성장, 활동, 그리고 별세하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생애 위주의 연대기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이다.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한다면 '생애와 사상(Life & Works)'의 관점에서 대상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가정과 성장, 교육을 배경으로 하여 어떻게 사상을 전개해 나갔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것은 작가, 사상가, 정치가 등에 관해 안내하는 저술 방식으로 고전에 속한다.

그런데 K. 린즈쿡의 저서 『C. S. 루이스와 기독교 세계로』는 다르다. 그는 루이스 내면 심층에 흐르고 있는 주제들을 선별하여 전체를 현실, 운명, 신비, 인격, 문화의 5개 부문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부문을 세분하여 16개의 테마로 구별했다. 이런 기술 방법은 생애, 사상, 저서 등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력을 갖추지 않으면 집필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루이스의 매니아로서 신앙 회복을 체험한 저자는 루이스와 독자를 연결하기 위해 어렵지만 보람된 저술 전략을 선택했다. 덕분에 우리는 루이스의 삶과 활동, 그리고 그의 저서들에 깃들여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크로싱(crossing) 하면서 마치 '루이스 저술 사전'을 대하는 듯한 유익을 얻게 된다. 저자는 또한 자상하게도 각 장의 끝부분에 '더 읽을 자료'를 첨부하여 루이스 저서에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린즈쿡은 생전의 루이스를 개인적으로 만난 경력이 있어, 보다 신빙성 있게 원 저자의 속뜻을 전달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과 상상력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무엇을 추구했던 것일까? 명예 신학박사를 받은 철학박사가 동화(『나니아 연대기』)와 우주공상적 환상소설(『페렐란드라』 3부작)을 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대학에서 학술적인 강연을 하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신앙적 권면을 하면서 시(『다이머』)를 쓰고, 소설(『순례자의 귀향』)을 쓰고, 에세이(『고통의 문제』, 『사랑의 알레고리』, 『인간의 폐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악마를 미워하면서도 악마의 입장에서 현대 신앙인을 유혹하는 페러디(『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글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과 상상력의 결혼을 꿈꾸었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특이한 수비(數比)적 인생 전력을 보인다. 9:23:23:9가 그것이다. 9세에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경험적 무신론에 빠져 23년 동안 신앙에 대한 회의와 방황의 세월을 보내다가 31세 즈음에 회심하고, 이때부터 23년간 기독교 저술가로 왕성하게 활동한다. 그리고 마지막 9년은 뒤늦게 찾아온 사랑, 조이 그래섬을 아내로 맞으며 행복하게 사는 듯했으나 암으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자신도 성인병 합병증으로 뒤를 따라간다.

저자 린즈쿡은 루이스의 생애와 인간 관계, 저술을 통해 그의 사상에서 사소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아니면 글로 남길 수 없는 부분까지 소화했다. 이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저자는 루이스의 다음 글을 인용한다. "자기 집 뒤뜰에서 늘 새로운 면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달에서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pp.79-80) 이성의 시대에 기독교 세계관을 이성과 논리로 주장하기는 쉽다. 하지만 그것을 상대방에게 감동 시키려면 감성이 필요하다. 루이스는 현대인들이 제법 견고하다고 보았다. 그는 틈새를 노려 "불신자들을 지성과 감성 두 가지로 공략할 수 있다."(p.305)고 보았고 "지성적 복음전도"를 위해 상상력을 선택했다(p.305).

복음과 문화의 번역자

린즈쿡은 루이스를 제대로 간파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한다. "루이스는 배움이 짧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독교 교리를 번역하는 임무를 자임했다."(p.306) 그는 당대 성직자들의 주석이나 부흥사들이 늘어놓는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현상을 읽고 스스로 복음의 번역가가 되고자 한 것이다. 오지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가 그곳의 언어를 배워야 하듯, 루이스는 현대인들이 동시대의 언어, 즉 문화의 옷을 입히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간파했다. "우리는 복음의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우리 시대의 현대어를 사용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책임이 있다."(p.307) 루이스의 저술 작업, 즉 장르를 넘나드는 전방위적 글쓰기, 동화, 소설, 판타지, 에세이, 강연, 방송, 편지쓰기 등은 모두 복음을 문화로 번역하는 숭고한 작업이었던 것이다.

린즈쿡은 루이스를 저술 전체에서 인용하고 있어 짧은 지면에 간단히 소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루이스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갖기 쉬운 허튼 자세에 권면을 하기도 하고 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그는 1963년 하늘나라로 갔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루이스의 작품이 유효한 이유를 자상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 책은 더 없이 좋은 루이스 안내서이자 신앙길잡이라 할 수 있다.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 문학,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을 공부했다(Ph. D.).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 문화운동가이다.



크·리·스·천·의·S·N·S

일시 2012.11.10(Sat) 10:00 - 18:00

장소 명지대학교 서울캠퍼스

- 주제발표 ▶ 방목학술종합관 국제회의실
- 대학원/분과발표 ▶ 경상관

주최 기독교학문연구회(학회), 기독교경영연구원
로고스경영학회, 문화선교연구원

주관 기독교학문연구회(학회)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표

| | |
|---------------|--|
| 09:30 ~ 10:00 | 등록 1 |
| 10:00 ~ 12:00 | 대학원생 논문 발표(3개분과/총 14편) |
| 12:00 ~ 13:00 | 오찬 / 등록 2 |
| 13:00 ~ 13:20 | 개회 / 시상식 |
| 13:20 ~ 14:40 | 주제강연 및 논평 1. SNS 사회와 한국교회의 미래 _강진구(고신대 교수) 2. SNS=social+networking+servies? : SNS 현상에 대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들 _김용찬(연세대 교수) |
| 14:40 ~ 18:00 | 분과별 발표회(8개분과 / 총 35편) |
| 18:00 ~ 19:00 | 저녁만찬 |

* 참가비는 20,000원입니다.
* 문의 02) 754-8004, 3272-4967
E-mail. gihakyun@daum.net

연길사는 울리배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에서도 사랑은 전할 수 있습니다.”

김학원 지음 | 민음의 글들 305 | A5변형
288쪽 | 전면 컬러 | 13,000원

1992년 3월 연길에 첫발을 디딘 김학원 원장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부모 없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아이를 낳는 대신 중국 아이들을 품에 안아 키우기 시작해 20년이 지난 지금 100명이 넘는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집은 연변 지역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봉사자들과 김학원 원장이 직접 땅을 파고 벽돌을 쌓아 세운 집입니다. 사랑의 집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을, 낮은 자를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_오장숙 위원 (중국 제8, 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진주의 노래

사랑이있는한
인간의애일은
걱정이없다

‘한국 고아들의 어머니’ 윤학자의 국경을 넘어서 사랑과 헌신의 발자취

일제강점기, 목포 공생원 설립자 윤치호와 결혼하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 한국 고아들을 돌보며 사랑을 나누다 간 윤학자 여사(1912-1968, 일본명 다우치 치즈코)의 삶과 신앙을 돌아본다. _목포 공생원 www.mksw.org

모리야마 사토시 지음 | 윤기 옮김

홍성사.
T. 333-5161 <http://www.hsbooks.com>

머리 좋은 사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예방(禮訪)하였다.
 “폐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인기가 높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하였다.
 “그야 간단하지요. 머리 좋은 사람을 골라 써야 합니다. 한 번 보여드릴까요?”
 하면서 여왕은 블레어 수상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 내었다.
 “블레어 수상, 당신 부모님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당신의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닙니다. 누구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블레어 수상은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대답했다. “그야 쉽지요. 바로 접니다.”
 여왕은 기분이 좋아서 “보세요. 내가 쓰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하고 자랑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백악관에 돌아 간 오바마 대통령은 부통령 베이든을 불러서 시험을 했다.
 “부통령, 당신 부모님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신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닙니다. 누구겠습니까?”
 베이든은 “에이, 그런 괴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손을 내저었다.
 대통령은 사흘 안에 대답을 알아오라고 명령하였다.
 베이든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언어학자, 민속학자, 가정학자 등 전문가들로
 연구위원회를 조직하였으나 신통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전 국무장관 파월 장군을 만났다.
 “파월 장군, 당신 부모님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신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닙니다. 누구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파월 장군은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다.
 “그야 바로 나지요!” 베이든은 무릎을 쳤다. 당장 대통령에게 달려가서 대답을 찾았다고 보고했다.
 “그게 누굽니까?” 대통령이 묻자, “그게 바로 파월 장군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름(벼락, Barak)에 걸맞게 버럭 화를 냈다.
 “그게 어떻게 파월 장군이요! 파월이 아니라 블레어 수상이요, 블레어 수상!”

WORLDVIEW NEWS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8기 개강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8기가 지난 10월 6일(토) SICA(국제기독교아카데미)에서 개강하였습니다. 동역단체인 CGN-TV의 대표이사이자 본 단체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원장인 조정민 목사의 말씀선포에 이어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인 총신대학교 신국원 교수의 기독교세계관 개관으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에 장소로 섬겨주시는 SICA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9기는 3월에 개강합니다. **상시로 접수**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02-754-8004 (담당: 홍정석 간사)



제29회 기독교학술회 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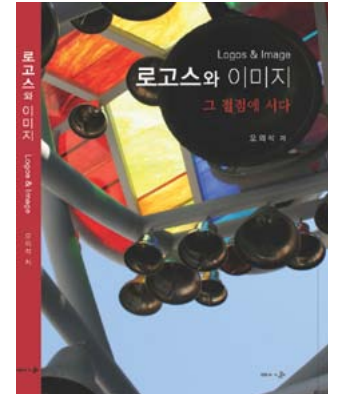
제29회 기독교학술회가 11월 10일 토요일 명지대학교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학회의 주제는 “SNS & CNS”로 크리스천의 SNS에 대해 강진구 교수(고신대)와 김용찬 교수(연세대)의 발표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대학원 세션의 논문이 발표되며 이어서 주제강연, 3시부터 경제/경영, 교육, 철학, 문화/예술, 사회복지, 상담심리, 기독교 세계관의 분과별로 논문이 발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54-8004 (담당: 신호영 간사)

신앙과 학문 17권 4호 투고안내

기독교학문연구회의 학회지(신앙과 학문) 17권 4호(12월 31일 발행)의 투고를 받습니다. 본 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 학술등재지로 상시로 투고접수를 받으니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려는 기독교학자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문의 02-754-8004 (담당: 신호영 간사)



회원소식: <로고스와 이미지> 출간
 개인전 18회를 가진 조각가이며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이자 본 단체 회원인 오의석 교수가 신간을 출간하였습니다. 본서는 우리 시대에 로고스를 찾는 이들의 자취를 따라 걸으며 기독교미술의 지평을 조망하였습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제4차 실행위원회 실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2012년 제4차 실행위원회가 10월 24일(수) 용산 사무국에서 있었습니다. 동역회를 이끌어 가시는 실행위원이 참석하셔서 사무국의 다양한 안건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동역회 실행위원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월드뷰 독자후기

주관적인 수필이나 개인적인 간증에 치우쳐 감성(heart)에 호소하는 다수의 기독교 출판물과 달리, <월드뷰>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일관성과 깊이를 갖춘 지성(mind)에 호소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천 만 명이 가깝다고는 하지만, 현재 한국 기독교는 공공의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고 개인의 영역, 감정의 영역으로 위축되었기에 더욱 더 <월드뷰>와 같은 출판물이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사역과 삶을 소개하는 일을 매우 잘 해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젊은 세대를 발굴하고 후원하는 역할도 더욱 적극적으로 감당했으면 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도서관 창가의 어느 자리에는 성경책과 전공책을 꺼내들고 한숨을 쉬고 있는 후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의 제 모습처럼 말이지요.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월드뷰>를 통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일으켜주는 역할을 감당하길 부탁드립니다. 젊은 세대를 세우지 못한다면, 결국 <월드뷰>는 '월드 뷰'로 변질되어 추억의 뒷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월드뷰>가 이 세대와 소통하며 건강한 기독교문과 기독교화를 부흥시키는 '홀리 뷰'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 인천에서 조성진 님

“조성진님께는 「지성과 영성의 만남.(홍성사)을 선물로 드립니다.”

Love to learn,
Love to think,
Love thy God!

2012년도 신입생
 입학재민집

서울 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SICA)는
 기독교적 고전교육(Classical and Christ-centered Education)을
 지향하는 국제학교입니다.



2012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 입학

Senior Kindergarten(유치원생)/Grammar level(초등학교 1-4학년)

▶ 황제시면의숙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거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63번지



SICA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Seoul International Christian Academy

☎ 557.7710
 sicaacademy@sky.com.kr
 www.sicaacademy.org



Global Mission Hospital of Cherishing Life through Excellence in Integrative Medicine & Holistic Healing

**탁월한 통합의료와 전인치유로
 생명사랑을 실현하는 글로벌 선교 병원**

- 암에 대한 '통합치료' 시스템을 구축한 통합의학암센터
- 보건산업진흥원 선정 인공관절수술 부문 우수기술 보유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액투석 적절성 평가 '최우수 등급' 병원
- 대한심장학회 심혈관중재시술 인증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선정 외국인환자유치 종합병원 부문 1위 병원

안양샘병원 031 467 9114 샘여성병원 031 467 1000 샘한방병원 031 463 4310 G샘병원 031 457 9114

통합의학암센터 031 467 9188 / 9388 | 관절전문센터 031 467 9167 | 뇌척추센터 031 467 9285 | 치과센터 031 463 4383
 샘건강의학센터 031 463 4331~2 | 샘산업의학센터 031 463 4390~2 | 응급센터 031 467 9119 / 9129 | 산후조리원 031 467 1190
 산전관리실 031 467 1020~1 | 만안구노인보건센터 031 466 6370 | 샘병원교회 031 467 9335 | 장례식장 031 467 9700 / 9770

한동대학교 공신증



한동대학교로

교수님을 초청합니다.

2013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

접수기간: 2012년 10월 25일(목) ~ 2012년 11월 12일(월)

접수장소: 한동대학교 교무팀

문의처: 054-260-1073

홈페이지: <http://www.handong.edu>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